

완도군,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2014년 햇살작은도서관 시작 1읍면 1도서관 조성 독서문화 저변 확대·도서지역 문화 격차 해소 호평

완도군은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회장 김을호)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시상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탁월한 기획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자체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을 비롯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강원도 동해시, 충남 공주시,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등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완도군은 2014년 신지 햇살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1읍면 1도서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도서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던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국군 장병을 위한 병영 도서관 조성,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돋보였다.

군은 올해 고급 작은도서관을 조성으로 1읍면 1도서관 조성의 목표를 달



성하고,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완도군과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업무 협약을 맺어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 환경 조성에 앞장서라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문화적 격차를 느끼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원다향에 어민-소비자 자연산 활·선어 직판장 개장

어민 직접 운영 저렴하게 먹고 구매 가능...소득 증대 예상

진도군 의신면 원다향에 어민이 직접 잡은 싱싱한 자연산 활·선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군은 의신면 원다향 일원에 건립된 활·선어 직판장을 지난 1월 초순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건립한 활·선어 직판장은 수산물 유통 현대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141㎡, 지상 1층 2개동으로 지어졌다.

직판장에는 싱싱한 자연산 활어를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식당과 활어 판매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활·선어 직판장은 연안에서 잡은

신선한 자연산 수산물 판매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직거래 시장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활·선어 직판장이 건립되면서 진도군 의신면의 소형어선들이 잡아 올린 자연산 농어, 낚지, 감성돔, 송어, 간재미 등 싱싱한 수산물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돼 새로운 관광 명소가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도 현장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며, 전화 주문으로 포장 판매도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061-544-0015.

진도=조상용 기자

조선시대 병마절도사가 즐긴 강진 '병영설성 사또주'

김견식 식품명인이 만든 전통주류 명절 선물로 인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강진군 특산물인 병영양조장의 전통주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조선시대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했을 때 머물렀던 강진군 병영면

에 김견식 식품명인이 만든 사또주와 병영소주가 명절을 맞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병영설성 사또주는 친환경 강진 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강진 수인산

밀 맑은 지하수 100%를 사용하여 3주 이상 발효 후 증류 제조한다. 숙성 과정 중에 오미와 복분자를 침출하여 은은한 향을 더해 40도의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숙취가 없는 병영양조장의 고유 기술로 만들어진 고급주다.

사또주는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도를 관장한 전라병영절도사가 보리로 소주를 만들어 즐겼다는 이야기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세계 3대 주류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술로 평가받고 있다.

병영양조장의 김견식 대표는 20세도 채 안된 나이에 주조장에 입문하여 60년간 전통주 제조에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 61호로 지정되어 '좋은 술은 좋은 원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다.

병영양조장은 사또주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만월 막걸리, 보리쌀을 사용하여 전통 제주 과정을 거친 증류식 소주인 병영소주, 향이 은은하고 숙취가 없는 약주인 청세주 등 모든 제품을 국내산 쌀과 보리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뛰어난 맛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병영사또주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700ml 1병 기준 2만 5천원이며, 구입문의는 병영양조장(061-432-1010)과 강진군직거래지원센터(061-433-8844)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산림 소득 증대사업 신청 안내

원목 표고 활성화 위한 표고종균·표고자목·표고 재배사 등 지원

장흥군은 원목 표고 재배 활성화 및 장흥 표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표고종균, 표고자목, 지역맞춤형 표고 재배사를 집중 지원한다.

장흥군은 기후 변화와 노령화에 따른 원목 표고 재배량의 감소에 대응하여 장흥군 기후와 특성에 적합한 표고종균을 군비(자목당 500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고온 피해(버섯균 사멸) 방지를 위해 지역 맞춤형 표고 재배사(상부 환기형 이중 차광, 온습도 자동 제어 장치)를 갖춘 산림청 표준 모델 '원목3형'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원목 표고 생산량 증대와 '장흥 표고버섯' 명성 유지(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표고자목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산림 소득 증대사업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 단체, 전문 임업



인(임업 후계자, 독립가, 신지식 임업인)이며, 지원 조건은 원목 표고 재배 경험이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 최소 330㎡(2,000본) 이상 원목 표고 시설 재배자, 노지에서 1,000㎡ 이상 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이다.

신청 접수는 1월 6일부터 2월 10일(26일)까지이며, 사업장 기준 해당 읍면(산입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고종균, 표고자목, 특수 소득 작목(감초, 복령, 작약 등), 표고 재배사, 관정, 저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 장비, 포장재, 유통 차량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식품특화단지 김치 수출단지 조성 추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방문, 국비 확보 활동 본격 착수

해남군이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김치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배추 가격 하락

과 김치 수출 증가 추세에 따라 김치 중심 배추 가공단지를 조성해 안정적 배추 수요처를 확보하고 수출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치 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

단지 2지구내에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는 HMR(가정간편식) 시장과 면역력 증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상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 김치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국비 확보 등을 건의했다.

기동취재본부

